

7월 7일 예세도교회 설 가정예배



예배 순서

2019.02.06

목상기도	인도자
찬양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같이
대표기도	대표기도자
성경봉독 시 66:10-20	인도자와 가족
말씀 예배, 만사 형통의 삶	인도자
찬양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같이
가족소식 가족 소식과 명절 감사 나누기	인도자
가족기도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 후 인도자 기도로 마무리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 28장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 찬송 384장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2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2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2

- 예배, 만사형통의 삶 -

시 66:10-20

10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나이다 15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9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신이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사형통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결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길 힘을 주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만사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 중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한층 단련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14, 15절).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자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부르짖으며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17절). 이것이 곧 진정한 기도이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된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사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그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만사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